

MB정권, 촛불막기 혈안 '계엄' 방불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29 22:44

[사진1]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민들 저항목소리가 두려운 나머지 이명박 정권이 모든 경찰병력을 총동원해 촛불집회마저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권에 화가 단단히 난 성년 시민들이 20만이나 운집해 '반이명박'을 외친 다음날인 29일 경찰은 시민들 서울광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청 역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시민들 통행을 가로막았다. 경찰이 지하철역 입구를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서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대라, 무슨 근거로 통행을 가로막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또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코리아나호텔, 덕수궁과 프라자호텔을 거쳐 하나은행 앞쪽에까지 전경버스를 촘촘히 대놓고 시민들 접근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중무장한 전투경찰들을 동원해 서울광장 주변을 뺨 둘러막아 시민들이 서울광장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도록 했다. 프라자호텔 앞쪽에서 서울광장으로 통하는 횡단보도에 경찰병력이 수백 명 버티고 서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시민들 횡단보도 통행마저 봉쇄했다.

시민들이 다가서면 몰려들어 방패를 들이대는 경찰들을 향해 시민들은 "너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이들은 노숙자니까 밀어버려라"라고 지시했다.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은 "시민에게 노숙자라고 말한 경찰 간부 나와서 사과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어떻게 시민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명박을 위한 경찰이냐? 국민을 위한 경찰이냐?", "나는 이명박보다 건강보험료 훨씬 많이 낸다. 재산이 수백억인 자가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2만원 내느냐?"며 울분을 쏟아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가슴에 안은 한 부부와 한 임산부는 횡단보도를 건너 프라자호텔 쪽으로 가려다가 중무장한 경찰병력에 의해 길을 가로막혔다. 경찰들이 방패를 들이밀며 위협을 가하자 시민들은 "아이가 있다, 임산부가 있다"며 경찰들에게 항의했다.

아이를 안고 묵묵히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최 아무개씨(40세)는 "오늘 정부 담화문을 티비로 시청하고 너무 화가 나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려고 나왔다"고 말하고 "인도로 가려면 인도를 막고, 횡단보도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막고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은 시민들을 불법으로 몰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최 아무개씨 부부는 정당히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가겠다며 1시간 넘게 아이를 안고 폭력경찰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였다.

경찰 폭력이 비상식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 시민들은 "지금 경찰이 과도하게 시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2008년 전경들이 제대한 후 취업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폭력을 난자하는 경찰들에 대해 한 70대 노인은 "경찰이 직권남용으로 시민을 능멸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며 "너희들도 양심이 있다면 부당한 명령에 대해 저항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도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분노를 토로했다. 또 한 시민은 "광주항쟁 때 시민들을 죽이라고 명령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너희들도 죽이라면 우리 죽일 거야?"라며 도를 넘은 경찰폭력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29일 오후 6시50분경 경찰병력에 의해 운신을 못하던 시민들이 한화빌딩 앞에서부터 프라지호텔 정문을 거쳐 을지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이동하자 경찰들도 따라왔고 시민 수천 명이 을지로1가에서 방향을 틀어 청계천 쪽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대오를 따라 이동하던 70대 한 노인은 "왜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느냐? 이명박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할 거면 그만두고 내려와라. 여기 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폭력을 쓰느냐?"며 경찰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청계천 쪽으로 이동해 항의하던 시민들을 경찰이 무차별 폭력연행했다. 청계천 삼일교 앞에서 “이명박은 물러나라”며 경찰에 항의하던 시민 5명을 경찰이 마구 폭행하며 잡아갔다. 시민들은 “왜 시민을 잡아가느냐? 혐의가 뭐냐?”며 항의했고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시민 머리를 아래로 강압하고 두 팔 다리를 잡아 마구 폭행하며 수십 미터를 끌고 가 불법연행했다. 시민들은 “풀어줘! 풀어줘!”라고 연호하며 경찰 폭력연행을 규탄했다.

청계천을 돌아 종로 쪽으로 이동한 시민들은 탑골공원 네거리와 종각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푸른 등이 켜질 때마다 차도를 점거하고 “이명박을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집회시위 보장하라”며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앞으로 이어지는 인도, 동아일보사 앞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차벽을 쌓고 시민들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촛불집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차가 주차된 곳에 병력을 배치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트럭 운전수가 오면 곧바로 연행해 경찰서에 억류하고 있다.

또 음향업체를 협박, “촛불집회에 음향협조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으러대고, 음향기기업체 사장 집으로까지 쳐 들어가 “음향기기가 어디 있느냐”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음향업체는 보유한 음향기기를 28일 2대 탈취당한데 이어 29일 또다시 경찰에 의해 음향기기를 뺏겼다.

뿐만 아니라 모래를 운반했다는 이유로 한 트럭기사는 49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강압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위축돼 있어 현재 촛불집회를 위한 발전기, 크레인, 방송기기 등이 섭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의 거짓사과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가 말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무고한 촛불시민들을 향한 군홧발뿐이다. 시민들은 “이 정권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항거하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